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시계열 효과 분석

곽 수 란¹⁾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교 진학 경로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2-3년제 전문대와 4-6년제 대학교로 집단을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최종 종속변수인 행복감은 가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3차년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인 무조건모형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이 개인의 자아인식과 연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기부터 대학생인 현재 시점까지 자아개념을 외생변수로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적진로장벽과 환경적진로장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 있게 확인되었으나,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간에는 그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행복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2개 대학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개념이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성인기에 진입한 대학생의 행복감과 그 변화요인을 탐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건강한 성인기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진로장벽,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행복감

I.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 대학생의 행복감을 진로 방해요인인 진로장벽 인식과 인과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진로확립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행복감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부터 형성된 자아발달 특성과는 인과관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고등교육 취학률이 71.5%(교육부, 2021)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초기 성인기에 접어든 청년들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사회를 부양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 행복감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 고구려대학교 교수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2022년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 대학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후속 연구라 할 수 있다. 2022년 연구는 청년기 대학생의 행복감에 주요 관심을 두고,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학업활동이 청년기의 학교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집단 간에 인과관계 맥락에 차이가 있었으나, 자아개념은 대학만족도와 행복감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공통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학생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자아개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현재의 자신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자아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아정체감은 타인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미성년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 자아개념은 진로성숙도와 직접적이고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 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하게 초기 성인기 진로활동 연계되는 것이다. 성인기에 진입한 대학생은 이전 발달과업을 통해 축적된 개인 역량이 현재 경제적, 사회적 성향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초기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진로발달은 진로탐색기에서 진로확립기로 이행하는 시기(Super, 1990)인 것이다. 진로발달 이행이 순조롭다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역량을 잘 발휘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직업 진로에로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인 셈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과 환경조건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인 자아개념과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학생 활과 미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확립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을 확인하고 그것이 대학생의 삶의 질을 상징하는 행복감과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자아개념과 진로 방해요인이 초기 성인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행복감

Erikson(1968)은 청소년기 가장 핵심적인 발달과업을 자아정체감 형성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아정체감(ego-identity)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혹은 정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Erikson이 인간 생애 발달 중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성인들로부터 보호와 배려를 받았던 미성년기와 다르게 청소년기 이후에는 자신이 성인기 사

회구성원으로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야하기 때문이다. 보호와 배려를 제공하는 성인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자아정체감이 성취되지 않으면 여전히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부양자로서 사회구성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곽수란, 2022).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은 성인기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책임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은 성인기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자아정체감 혼란이나 유실로 인해 진로 선택이 부적절할 경우, 불안정한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Marcia, 1980; Schiedel & Marcia, 1985).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고등학교 시기의 자아개념 수준은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이 자신의 독립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대학생의 자아개념은 불가피하게 진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곽수란, 2022; 이현경·김정민, 2017).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에 진입하는 발달과정에 있다. 한국사회의 고등교육인 대학진학률은 약70% 달하고 있다(2021. 통계청). 이는 초기 성인기 청년의 상당수가 대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대학생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 성인기에 접어들었지만 대학교육은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은 여전히 진로탐색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탐색에 대한 혼란과 진로확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압박감은 매우 크게 느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Lothaller(2010)는 초기 성인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는 일련의 과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 취업 및 사회 문화적 활동에서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한국사회 대학생의 상당수가 진로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클 가능성이 추정되는 것이다. 즉, 초기 성인기 대학생은 성인기에 진입하였으나, 의존적 환경에서 학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직업 활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한 성인 초기의 지원체제는 독립된 성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순조로운 진로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만약 이 시기에 순조로운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대학생의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 진로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wanson & Tokar, 1995; Lent et al., 2000; 이성식, 2007; 김종운·박성실, 2011; 신지영 외, 2012; 차아름·이희경, 2014; 김수현, 2007).

또한 환경적 지원체제는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주체인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대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또한 보고되고 있다(정기수·하정희, 2018; 조현주, 2012; 박정희·김홍석, 2009). 본 연구는 이론적 개념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청소년기 중요 발달 과업, 초기 성인기 진로장벽 인식 그리고 성인기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를 시계열적 맥락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1차~6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표본은 KEEPⅡ_4차 시점에서 2-4년제 전문대(이하 2년제대학)와 4-6년제 대학(이하 4년제대학)에 재학과 휴학 중인 학생 패널을 1차로 선정하였다. 4차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 데이터가 부가조사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 변수는 1차부터(고2) 4차까지 자아개념, 4차 부가조사로 측정된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 자아탄력성, 그리고 4차부터 6차까지 행복감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아개념, 진로장벽, 자아탄력성 그리고 행복감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최종 종속변수인 행복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인 무조건모형으로 투입하였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모두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투입된 표본 수는 1,391명(2년제대학 499명, 4년제대학 892명)이다. <표 1>은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기술통계량(2년제대학 n=499, 4년제대학 n=892)

요인 및 측정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년제	4년제	2년제	4년제	2년제	4년제	2년제	4년제
자아개념	고2_자아개념	1.00	1.60	5.00	5.00	3.56	3.71	.67	.58
	고3_자아개념	1.00	1.80	5.00	5.00	3.66	3.71	.61	.61
	대1_자아개념	1.00	2.00	5.00	5.00	3.61	3.71	.60	.61
	대2_자아개념	1.60	1.60	5.00	5.00	3.68	3.77	.61	.55
심리적 진로장벽	직업정보	1.00	1.00	4.00	4.00	2.08	2.20	.67	.70
	진로이해	1.00	1.00	4.00	4.00	2.25	2.32	.77	.70
	취업여건	1.00	1.00	4.00	4.00	2.60	2.85	.88	.80
환경적 진로장벽	취업기반	1.00	1.00	4.00	4.00	2.62	2.74	.65	.62
	사회경제적	1.00	1.00	4.00	4.00	1.81	1.76	.51	.53
	신상조건	1.00	1.00	4.00	4.00	1.78	1.72	.61	.58
자아 탄력성	사회적유능성	1.00	1.25	4.00	4.00	3.12	3.11	.48	.44
	낙관적자신감	1.00	1.00	4.00	4.00	2.82	2.83	.55	.52
	생산적호기심	1.00	1.00	4.00	4.00	2.69	2.66	.59	.61
행복감	4차_행복감	1.50	2.50	11.00	11.00	7.48	7.70	1.69	1.43
	5차_행복감	1.50	2.50	11.00	11.00	7.79	7.91	1.67	1.46
	6차_행복감	1.00	1.00	11.00	11.00	7.68	7.84	1.61	1.46

2. 변수 내용 및 특성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최종 종속요인인 행복감은 삶의만족도와 행복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특히 행복감은 정서적 특성으로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상당히 가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KEEPⅡ_4차부터 6차까지 변화되는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인 무조건모형을 설정하여 투입하였다.

성인기 초기 대학생의 자아개념은 아동·청소년기 자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이 모두 함의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존감이나 자아정체감을 자아발달의 포괄적인 개념인 자아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자아개념은 현재 시점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2부터 대학 재학 중인 현재 시점(4차)까지 모두 투입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고2, 고3, 대1, 대2 자아개념은 실제 재학 학년이라기보다는 대학생으로서 자아개념을 측정한 시기를 의미한다. KEEPⅡ_1차부터 4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진로장벽은 대학생의 진로 불리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심리적 진로장벽과 환경적 진로장벽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심리적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한 심리적 불리요인이며, 환경적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환경적 불리조건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EEPⅡ_4차 부가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이다. 자아탄력성 또한 부가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진로장벽 인식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투입하였다. 측정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수의 구성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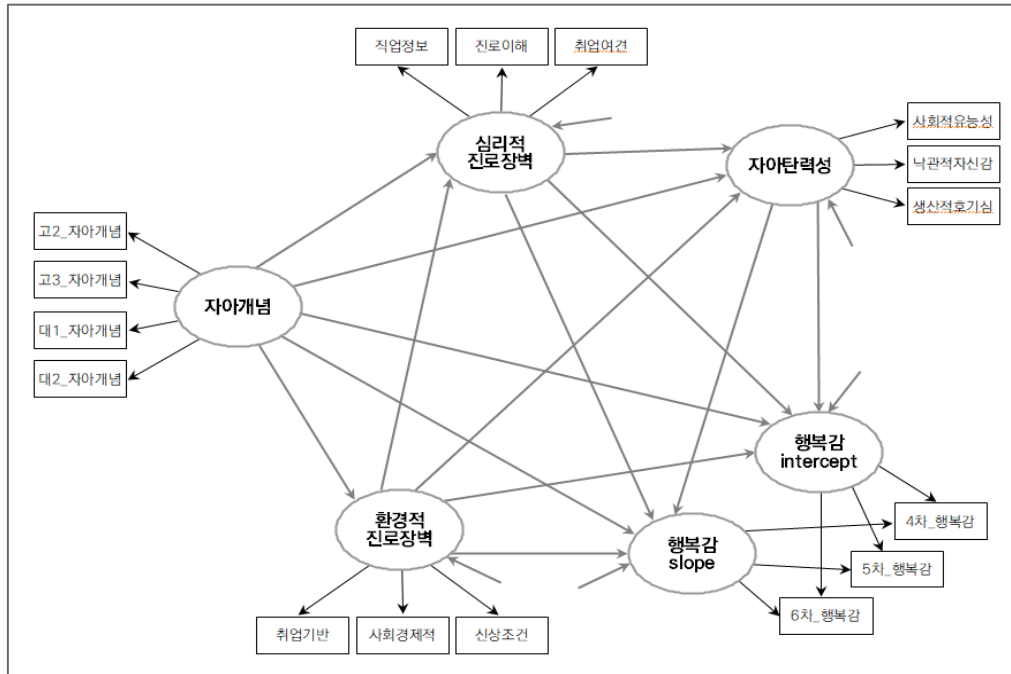
요인 및 측정변수		내용	데이터
자아개념	고2_자아개념	- 자신에 대한 인식 5문항 평균, 5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 자아개념 높음	KEEPⅡ 1차~4차 데이터
	고3_자아개념		
	대1_자아개념		
	대2_자아개념		
환경적 진로장벽	취업기반	- 취업 기반 부족 4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취업기반부족 함	KEEPⅡ 4차 부가조사 데이터
	사회경제적	- 학벌과 전공 불리 2문항, 진로준비를 위한 경제적 조건 불리 2문항, 부모와의 관계 불리 2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대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불리 함	
	신상조건	- 연령과 신체조건 불리 3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신상조건 불리 함	
심리적 진로장벽	직업정보	- 직업정보 장벽 4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직업정보 부족	KEEPⅡ 4차 부가조사 데이터
	진로이해	- 자신의 진로이해 부족 5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자신의 진로이해 부족	
	취업여건	- 취업여건 인식 정도 3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취업을 위한 현실여건 어려움	

요인 및 측정변수		내용	데이터
자아 탄력성	사회적유능성	- 대인관계 유능감 4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사회적 관계 유능성이 큼	
	낙관적자신감	- 자신감 있고 낙관적 태도 4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낙관적	
	생산적호기심	- 생산적 호기심 6문항 평균, 4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생산적 호기심 높음	
행복감	4차_행복감	- 삶의만족도 ①삶이 최악에 있음~④삶이 가장 최고에 있음	KEEPⅡ 4차-6차 데이터
	5차_행복감	- 행복도 1문항 ①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④매우 행복하다	
	6차_행복감	- 2문항 평균, 11점 척도 - 점수가 클수록 행복감 높음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먼저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개념이 성인 초기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자아개념은 청소년기부터(1차) 분석시점(4차)까지 투입하여 청소년기부터 형성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점에서 진로에 방해되는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심리 및 환경적 측면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진로장벽 인식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할 때 행복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최종 종속요인인 행복감은 잠재성장모형인 무조건모형으로 투입하여, 자아개념, 진로장벽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행복감과 행복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 데이터는 KEEPⅡ 1차~6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분석에 투입되는 주요 요인은 4차 부가조사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자아개념은 1차~4차 조사 자료이고, 진로장벽, 자아탄력성은 4차 부가조사 자료이다. 그리고 최종 종속요인인 행복감은 4차~6차 조사 자료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 및 공분산 계수 그리고 평균차이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는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상관 및 공변량 계수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개별모수는 MLR(Robust Maximum likelihood)로 추정하였다. 대학생 진로장벽과 행복감 인과관계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학생 진로장벽과 행복감 인과관계 연구모형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검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 방법인 ML은 다변량 정상성이라는 엄격한 기본가정이 요구된다. 다중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모수값을 추정하고 이 모수값에 최대한으로 접근하는 값을 설정된 모형의 추정치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표 3>은 LISREL PRELIS를 사용하여 다변량 정상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다중변수의 편포도 및 첨도 그리고 편포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2 검증 통계량이 크게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값이 관찰될 확률은 모두 $p=.00$ 으로 다변량 정상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변량 정상성이 검증되지 않을 때,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 WLS와 같은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상당히 큰 표본크기일 경우 ML과 WLS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이기중, 2012).

〈표 3〉 다변량 정상성 검증 결과

모형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값	Z값	p값	값	Z값	p값	x^2	p값
전체 (N=1,391)	6.736	14.652	.000	315.137	15.729	.000	462.071	.000
2년제대학 (n=499)	15.303	9.693	.000	316.292	9.925	.000	192.467	.000
4년제대학 (n=892)	8.790	10.316	.000	312.485	11.766	.000	244.863	.000

또한 개별 측정변수의 정상성(〈표 4〉, 〈표 5〉 참고)이 대부분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모수추정은 ML방식을 사용하였다. 다만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공통적으로 심리적 진로장벽과 환경적 진로장벽 측정변수의 개별변수 정상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ML 모수추정시 점근공분산행렬을 추가로 투입하여 MLR(Robust ML)로 추정하였다. MLR은 다변량 정상성이 충족되지 않는 불안정한 데이터도 안정적인 추정치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는 모수추정 방법이다.

〈표 6〉, 〈표 7〉은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대학생 집단의 측정변수 상관 및 공분산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2년제대학 집단의 고2_자아개념과 심리적 진로장벽 측정변수인 취업여건과의 상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그 외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상관계수와 공변량계수는 측정변수 특성을 확인하는 기술통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표 4〉 개별 측정변수 정상성 검증 결과(2년제대학 n=499)

요인 및 측정변수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값	Z값	p값	값	Z값	p값	x^2	p값
자아개념	고2_자아개념	-.029	-.265	.791	-.106	-.415	.678	.243	.886
	고3_자아개념	-.037	-.343	.731	-.146	-.630	.528	.515	.773
	대1_자아개념	-.022	-.207	.836	-.073	-.248	.804	.104	.949
	대2_자아개념	-.030	-.274	.784	-.115	-.462	.644	.288	.866
환경적 진로장벽	취업기반	-.004	-.036	.971	-.120	-.488	.625	.240	.887
	사회경제적	.087	.797	.425	-.280	-1.408	.159	2.617	.270
	신상조건	.265	2.403	.016	-.535	-3.304	.001	16.694	.000
심리적 진로장벽	직업정보	.148	1.359	.174	-.422	-2.385	.017	7.534	.023
	진로이해	.110	1.014	.311	-.372	-2.020	.043	5.109	.078
	취업여건	-.012	-.109	.914	-.615	-4.056	.000	16.460	.000
자아 탄력성	사회적유능성	-.056	-.516	.606	-.190	-.869	.385	1.021	.600
	낙관적자신감	-.037	-.341	.733	-.154	-.673	.501	.569	.753
	생산적호기심	-.021	-.190	.849	-.124	-.514	.607	.300	.861
행복감	4차_행복감	-.026	-.236	.814	-.103	-.404	.686	.219	.896
	5차_행복감	-.043	-.397	.691	-.122	-.502	.616	.409	.815
	6차_행복감	-.030	-.273	.785	-.081	-.288	.774	.157	.924

〈표 5〉 개별 측정변수 정상성 검증 결과(4년제대학 n=892)

요인 및 측정변수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값	Z값	p값	값	Z값	p값	x^2	p값
자아개념	고2_자아개념	-.039	-.480	.631	-.126	-.752	.452	.796	.672
	고3_자아개념	-.047	-.577	.564	-.167	-1.045	.296	1.426	.490
	대1_자아개념	-.032	-.393	.694	-.179	-1.135	.257	1.442	.486
	대2_자아개념	-.022	-.273	.785	-.069	-.359	.720	.203	.903
환경적 진로장벽	취업기반	-.015	-.185	.853	-.127	-.759	.448	.610	.737
	사회경제적	.105	1.288	.198	-.307	-2.155	.031	6.306	.043
	신상조건	.270	3.253	.001	-.546	-4.602	.000	31.761	.000
심리적 진로장벽	직업정보	.101	1.235	.217	-.361	-2.646	.008	8.528	.014
	진로이해	.053	.653	.514	-.260	-1.764	.078	3.537	.171
	취업여건	-.092	-1.131	.258	-.531	-4.419	.000	20.810	.000
자아 탄력성	사회적유능성	-.038	-.470	.638	-.129	-.773	.440	.818	.664
	낙관적자신감	-.021	-.264	.792	-.088	-.492	.623	.311	.856
	생산적호기심	-.016	-.191	.849	-.099	-.566	.571	.357	.836
행복감	4차_행복감	-.016	-.202	.840	-.052	-.252	.801	.105	.949
	5차_행복감	-.026	-.315	.753	-.060	-.305	.761	.192	.908
	6차_행복감	-.023	-.283	.777	-.052	-.253	.800	.144	.930

〈표 6〉 개별 측정변수 상관 및 공분산 계수(2년제대학 n=499)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고2_자아개념[1]	.45	.17	.15	.21	-.11	-.18	-.08	-.09	-.07	-.10	.10	.14	.12	.30	.24	.21
고3_자아개념[2]	.40***	.38	.13	.15	-.09	-.15	-.04	-.06	-.06	-.08	.07	.09	.06	.14	.17	.13
대1_자아개념[3]	.37***	.34***	.36	.17	-.08	-.14	-.11	-.10	-.07	-.07	.06	.09	.06	.26	.22	.15
대2_자아개념[4]	.51***	.41***	.46***	.37	-.13	-.21	-.13	-.10	-.08	-.10	.08	.12	.10	.42	.33	.26
직업정보[5]	-.24***	-.23***	-.21***	-.33***	.44	.32	.20	.20	.13	.14	-.04	-.09	-.09	-.19	-.13	-.14
진로이해[6]	-.34***	-.32***	-.31***	-.45***	.63***	.59	.35	.22	.18	.16	-.08	-.15	-.11	-.32	-.28	-.20
취업여건[7]	-.13**	-.08	-.20***	-.23***	.35***	.52***	.78	.26	.19	.14	-.05	-.10	-.11	-.19	-.19	-.16
취업기반[8]	-.21***	-.15***	-.24***	-.25***	.45***	.44***	.45***	.42	.14	.13	-.05	-.12	-.10	-.24	-.21	-.20
사회경제적[9]	-.20***	-.19***	-.23***	-.27***	.39***	.47***	.42***	.43***	.26	.16	-.06	-.08	-.06	-.28	-.24	-.20
신상조건[10]	-.24***	-.23***	-.20***	-.27***	.34***	.35***	.26***	.34***	.53***	.37	-.09	-.13	-.11	-.22	-.23	-.15
사회적응성[11]	.30***	.24***	.22***	.28***	-.14**	-.21***	-.11*	-.16***	-.26***	-.31***	.23	.17	.14	.21	.22	.10
낙관적자신감[12]	.38***	.27***	.27***	.37***	-.25***	-.35***	-.20***	-.33***	-.28***	-.39***	.65***	.30	.19	.30	.32	.20
생산적호기심[13]	.29***	.16***	.16***	.27***	-.22***	-.25***	-.20***	-.27***	-.20***	-.29***	.48***	.60***	.35	.26	.30	.16
4차_행복감[14]	.27***	.13**	.25***	.41***	-.17***	-.25***	-.13**	-.22***	-.33***	-.21***	.27***	.33***	.26***	2.84	1.46	1.31
5차_행복감[15]	.21***	.16***	.22***	.32***	-.12**	-.22***	-.13**	-.20***	-.28***	-.23***	.28***	.35***	.30***	.52***	2.79	1.55
6차_행복감[16]	.20***	.13**	.16***	.27	-.13**	-.16	-.11*	-.19***	-.25***	-.16***	.13**	.23***	.17***	.48***	.58***	2.58

*p<.05, **p<.01, ***p<.001

〈표 7〉 개별 측정변수 상관 및 공분산 계수(4년제대학 n=892)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고2_자아개념[1]	.34	.15	.16	.17	-.11	-.12	-.06	-.10	-.06	-.07	.06	.11	.12	.24	.19	.20
고3_자아개념[2]	.41***	.38	.18	.14	-.10	-.10	-.06	-.07	-.05	-.04	.04	.09	.07	.20	.20	.20
대1_자아개념[3]	.44***	.47***	.38	.17	-.11	-.11	-.07	-.10	-.07	-.07	.04	.10	.09	.23	.22	.18
대2_자아개념[4]	.52***	.41***	.51***	.30	-.11	-.12	-.07	-.09	-.07	-.08	.05	.10	.09	.31	.21	.21
직업정보[5]	-.26***	-.23***	-.26***	-.28***	.49	.33	.24	.19	.16	.10	-.05	-.10	-.06	-.18	-.20	-.18
진로이해[6]	-.28***	-.22***	-.25***	-.31***	.67***	.50	.27	.19	.16	.11	-.04	-.10	-.07	-.18	-.21	-.24
취업여건[7]	-.12***	-.12***	-.14***	-.17***	.43***	.48***	.64	.22	.16	.10	-.04	-.08	-.08	-.09	-.23	-.18
취업기반[8]	-.27***	-.18***	-.25***	-.26***	.43***	.42***	.43***	.38	.14	.10	-.04	-.08	-.07	-.17	-.14	-.13
사회경제적[9]	-.20***	-.16***	-.21***	-.25***	.43***	.44***	.37***	.41***	.28	.17	-.05	-.06	-.03	-.24	-.19	-.20
신상조건[10]	-.21***	-.10***	-.19***	-.24***	.26***	.26***	.22***	.26***	.55***	.34	-.07	-.10	-.05	-.21	-.20	-.19
사회적유능성[11]	.22***	.15***	.15***	.21***	-.16***	-.14***	-.11***	-.13***	-.22***	-.28***	.19	.14	.12	.18	.15	.11
낙관적자신감[12]	.37***	.27***	.30***	.36***	-.28***	-.28***	-.19***	-.26***	-.22***	-.34***	.63***	.27	.18	.23	.21	.16
생산적호기심[13]	.33***	.19***	.24***	.28***	-.14***	-.15***	-.16***	-.19***	-.09***	-.13***	.43***	.55***	.37	.19	.19	.13
4차_행복감[14]	.29***	.22***	.26***	.40***	-.18***	-.18***	-.08**	-.19***	-.31***	-.25***	.28***	.30***	.21***	2.04	.87	.79
5차_행복감[15]	.22***	.22***	.25***	.27***	-.19***	-.21***	-.19***	-.15***	-.24***	-.23***	.23***	.28***	.21***	.42***	2.14	1.06
6차_행복감[16]	.23***	.23***	.20***	.26***	-.18***	-.23***	-.16***	-.14***	-.26***	-.23***	.18***	.21***	.14***	.38***	.50***	2.13

*p<.05, **p<.01, ***p<.001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 학교문화 특성 상, 2~3년제대학교, 4~6년제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측정변수 특성의 차이를 통계적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평균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8>은 대학유형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대학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측정변수는 고2, 대1, 대2 자아개념, 심리적 진로장벽인 직업정보, 취업여건, 환경적 진로장벽이 취업기반 그리고 4차 행복감이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모두 4년제대학 집단이 2년제대학 집단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유형 간 평균차이 검증 또한 데이터의 특성을 탐색하는 기술통계적 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8> 전문대와 대학 집단 측정변수 평균차이 검증(df=1389)

요인 및 측정변수		대학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자아개념	고2_자아개념	2년제대학	499	3.556	.671	-4.376	.000
		4년제대학	892	3.707	.585		
	고3_자아개념	2년제대학	499	3.659	.614	-1.411	.158
		4년제대학	892	3.707	.615		
	대1_자아개념	2년제대학	499	3.614	.602	-2.813	.005
		4년제대학	892	3.709	.613		
	대2_자아개념	2년제대학	499	3.683	.607	-2.866	.004
		4년제대학	892	3.774	.545		
환경적 진로장벽	취업기반	2년제대학	499	2.616	.651	-3.383	.001
		4년제대학	892	2.735	.620		
	사회경제적	2년제대학	499	1.806	.509	1.522	.128
		4년제대학	892	1.762	.528		
	신상조건	2년제대학	499	1.783	.607	1.926	.054
		4년제대학	892	1.719	.581		
심리적 진로장벽	직업정보	2년제대학	499	2.076	.667	-3.288	.001
		4년제대학	892	2.202	.699		
	진로이해	2년제대학	499	2.248	.770	-1.829	.068
		4년제대학	892	2.322	.705		
	취업여건	2년제대학	499	2.597	.882	-5.542	.000
		4년제대학	892	2.854	.802		
자아 탄력성	사회적유능성	2년제대학	499	3.116	.478	.353	.724
		4년제대학	892	3.107	.440		
	낙관적자신감	2년제대학	499	2.816	.547	-.519	.604
		4년제대학	892	2.832	.524		
	생산적호기심	2년제대학	499	2.687	.592	.848	.397
		4년제대학	892	2.658	.611		
행복감	4차_행복감	2년제대학	499	7.476	1.685	-2.614	.009
		4년제대학	892	7.699	1.430		
	5차_행복감	2년제대학	499	7.790	1.669	-1.455	.146
		4년제대학	892	7.915	1.462		
	6차_행복감	2년제대학	499	7.683	1.608	-1.861	.063
		4년제대학	892	7.841	1.458		

2.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행복감 인과관계 분석 결과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는 <표 9>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정량적 적합도 평가지표인 Chi-square(χ^2)는 설정된 모형의 공분산 행렬이 모집단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집단 공분산 행렬에 들어맞는 정도($\Sigma = \Sigma(\theta)$)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이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에 있어 χ^2 값이 작고 확률 값이 유의미하게 클 때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모형 적합도는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정량적 적합도 지수인 χ^2 는 설정된 모형은 모집단 변수 간의 구조에 정확하게 합치(exactly fit)한다는 기본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정확합치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다. 더 나아가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모집단 공분산 행렬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공분산 행렬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합치 기준이 완화한 근사합치 평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Browne & Cudeck, 1993).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평가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정확합치(χ^2) 기준을 완화한 평가방법이 근사합치(approximative fit) 지수인 RMSEA이다. 근사합치 지수인 RMSEA는 정확합치의 엄격한 기준이 완화된 .05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이기중, 2012). 이에 본 연구모형의 RMSEA는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각각 .04와 .05로 구조방정식모형 전체 적합도 지수는 충족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간 인과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동질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집단의 인과관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집단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적합도 지수인 χ^2 는 적절하지 않으나, RMSEA는 .05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개 대학 유형 집단의 인과관계가 유사한 맥락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집단의 데이터를 동일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두 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에는 위반추정치(heywood case)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개별 추정치를 비교하였다.

<표 9>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모형	$\chi^2(p)$	df	NC	TLI	CFI	RMSEA
전체 모형(n=1,391)	464.44(.00)	91	5.10	.97	.97	.05
2년제대학 모형(n=499)	200.61(.00)	91	2.20	.97	.98	.04
4년제대학 모형(n=892)	337.53(.00)	91	3.71	.96	.97	.05
다집단 모형(2년제/4년제)	629.79(.00)	227	2.77	.97	.9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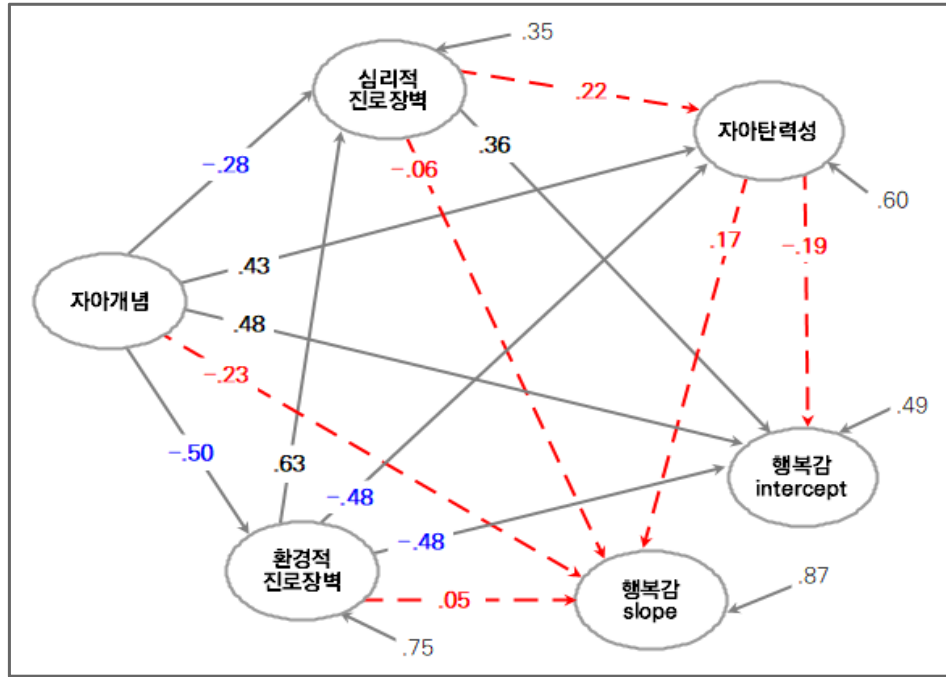
<표 10>은 측정변수가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측정모형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5개 잠재요인인 자아개념, 심리적진로장벽, 환경적진로장벽, 자아탄력성, 행복감이 16개 측정변수에 의해 적확하게 측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잠재요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수 람다(λ) 추정치가 모두 $p < .0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이는 측정변수가 각각의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해석과 논의는 잠재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 10> 측정모형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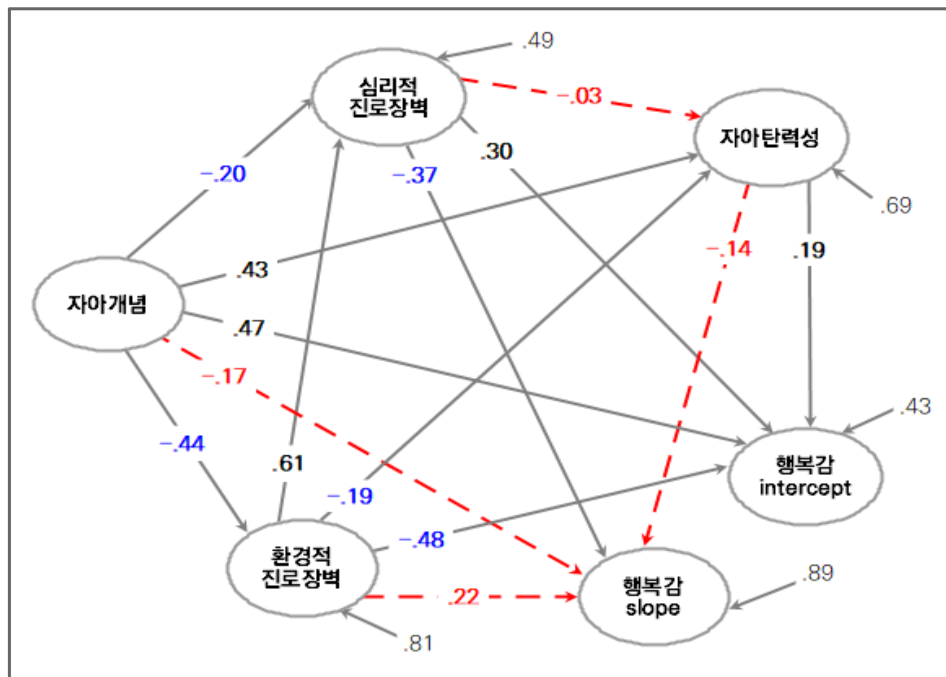
추정 경로		2년제대학(n=499)		4년제대학(n=892)	
		B(SE)	β	B(SE)	β
자아개념	고2_자아개념	1.00(.26)	.66	1.00(.18)	.69
	고3_자아개념	.76(.27)	.54	.91(.25)	.59
	대1_자아개념	.79(.24)	.58	1.03(.20)	.68
	대2_자아개념	1.10(.13)	.80	1.03(.13)	.76
환경적 진로장벽	취업기반	1.00(.26)	.63	1.00(.27)	.64
	사회경제적	.94(.12)	.74	1.23(.10)	.65
	신상조건	.96(.22)	.63	1.05(.21)	.45
심리적 진로장벽	직업정보	1.0(.22)	.71	1.00(.18)	.71
	진로이해	1.43(.14)	.88	1.06(.15)	.46
	취업여건	1.08(.52)	.58	.84(.43)	.63
자아 탄력성	사회적유능성	1.00(.11)	.72	1.00(.10)	.68
	낙관적자신감	1.44(.05)	.90	1.59(.05)	.91
	생산적호기심	1.15(.05)	.67	1.24(.23)	.61
행복감	4차_행복감_intercept	1.00	.73	1.00	.72
	4차_행복감_slope	.00	.00	.00	.00
	5차_행복감_intercept	1.00	.75	1.00	.69
	5차_행복감_slope	1.00	.23	1.00	.32
	6차_행복감_intercept	1.00	.77	1.00	.70
	6차_행복감_slope	2.00	.48	2.00	.65

측정모형(2년제, 4년제) 전체 λ 값은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

[그림 2]와 [그림 3]은 표준화추정치로 제시한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최종 종속요인인 행복감은 잠재성장모형 무조건모형으로 투입하였다. 자아개념, 심리적진로장벽, 환경적진로장벽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할 때는 구체적 인과관계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11>은 구조방정식모형 직접효과, <표 12>는 구조방정식모형 간접효과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2년제대학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그림 3] 4년제대학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자아개념은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의 자존감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으로 형성·발달된다. 자아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가변적 특성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고정적 특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개념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성인인 된 대학생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외생변수로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이 대학생의 심리적진로장벽(2년제 $\beta=-.28$, $t=-4.26$ / 4년제 $\beta=-.20$, $t=-4.25$)과 환경적진로장벽(2년제 $\beta=-.50$, $t=-7.09$ / 4년제 $\beta=-.44$, $t=-7.90$)에 미치는 영향은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부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높을 때는 직업정보, 진로이해, 취업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은 취업기반이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신상조건 또한 불리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자존감과 자아정체감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부터 형성되는 자아개념은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결정 그리고 진로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더 나아가 이 결과는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과 같은 즉, 대학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자아개념은 문제해결이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인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즉, 자아개념이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며, 이 결과 또한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집단에서 공통적이다(2년제 $\beta=.43$, $t=6.10$ / 4년제 $\beta=.43$, $t=8.17$).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아개념의 긍정적 효과는 행복감초기값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2년제 $\beta=.43$, $t=4.94$ / 4년제 $\beta=.47$, $t=6.50$). 즉,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 대학생 시점까지 자아개념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유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자아개념이 행복감초기값에 미치는 효과는 심리적진로장벽, 환경적진로장벽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도 그 효과는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1> 참고). 그러나 주의하여 살펴볼 결과는 긍정적 자아개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복감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행복감변화값에 대한 자아개념의 효과는 2년제대학 및 4년제대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이다(2년제 $\beta=-.23$, $t=-1.37$ / 4년제 $\beta=-.17$, $t=-1.79$). 더 나아가 자아개념이 심리적진로장벽, 환경적진로장벽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감변화값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있다(<표 11> 참고).

대학생의 환경적진로장벽은 사회경험 부족, 자격증 미비, 영어점수 부족, 취업가능 배경 부족으로 측정된 취업기반부족, 가족과의 관계와 학벌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측정된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건강이나 체력조건 생물학적 나이로 측정된 신상조건으로 측정된 요인이다. 이러한 환경적진로장벽은 심리적진로장벽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2년제 $\beta=.63$, $t=8.21$ / 4년제 $\beta=.61$, $t=10.83$). 환경적진로장벽은 심리적진로장벽으로 직접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환경적진로장벽은 자아탄력성(2년제 $\beta=-.48$, $t=-4.28$ / 4년제 $\beta=-.19$, $t=-2.93$)과 행복감초기값(2년제 $\beta=-.48$, $t=-3.21$ / 4년제 $\beta=-.48$, $t=-4.6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환경적진로장벽은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환경적진로장벽이 심리적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면, 2년제대학은 행복감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4년제대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년제 $\beta=.17$, $t=1.54$ / 4년제 $\beta=.14$, $t=2.45$ / <표 12> 참고). 이는 2년제대학생과 다르게 4년제대학생의 경우, 환경적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심리적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이 의미있게 개입되어 행복감초기값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환경적진로장벽이 행복감변화값에 미치는 효과는 행복감초기값과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환경적진로장벽이 행복감변화값에 미치는 영향은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년제 $\beta=.05$, $t=.18$ / 4년제 $\beta=.22$, $t=1.64$). 또한 환경적진로장벽이 심리적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하면, 2년제대학은 행복감변화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4년제대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2년제 $\beta=.02$, $t=.14$ / 4년제 $\beta=-.20$, $t=-2.30$ / <표 12> 참고).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환경적진로장벽은 행복감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환경적진로장벽은 심리적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더라도 행복감변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4년제대학생에게서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장벽인 심리적진로장벽은 직업정보부족, 진로이해부족 그리고 현재 취업여건 인식인 취업여건미흡으로 측정된 요인이다. 심리적진로장벽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집단에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2년제 $\beta=.22$, $t=1.96$ / 4년제 $\beta=-.03$, $t=-.41$). 즉, 심리적진로장벽은 문제해결이나 극복 역량에 의미있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진로장벽은 행복감초기값에는 두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보여준다(2년제 $\beta=.36$, $t=2.49$ / 4년제 $\beta=.30$, $t=3.47$). 이는 심리적진로장벽은 대학생이 진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초기값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심리적진로장벽 인식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즉, 대학생 신분으로 진로장벽이 높다는 인식으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학생이기 때문에 진로장벽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은 높아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심리적진로장벽은 그 자체가 대학생이 인식하는 특성으로 스스로 진로에 대한 무능을 인정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맥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방향의 맥락이든 심리적진로장벽은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행동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심리적진로장벽이 오히려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인다는 결과는 지속적으로 심리적진로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장벽 탐색에 있어 의미 있는 요인이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이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초기값에 미

치는 영향은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이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2년제 $\beta=.17$, $t=1.75$ / 4년제 $\beta=.19$, $t=3.50$). 2년제대학 집단의 자아탄력성→행복감초기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4년제대학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년제대학생은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나, 4년제대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행복감초기값이 높아지는 결과인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수의 방해오차(ζ)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립요인이 종속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1-R^2$ 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적진로장벽은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모형에서 각각 .75, .81로 추정되었다. 이는 자아개념이 환경적진로장벽을 설명하는 정도가 각각 25%, 19%라는 것을 의미 한다. 자아개념이 환경적진로장벽을 설명하는 정도는 2년제대학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진로장벽의 방해오차는 각각 .35, .49로 2년제대학 집단에서는 자아개념과 환경적진로장벽이 심리적진로장벽을 설명하는 정도가 65%, 51%로 환경적진로장벽 설명량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진로장벽 방해오차와 유사하게 심리적진로장벽 오차도 4년제대학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2년제대학 집단의 설명량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아탄력성의 방해오차도 심리적 및 환경적 방해오차와 유사하게 2년제대학이 4년제대학 집단보다 더 작게 추정되고 있다. 즉, 두 집단에서 .60, .69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2년제대학 집단의 자아탄력성은 자아개념, 환경적 및 심리적 진로장벽이 40%, 4년제대학 집단은 31%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행복감초기값의 방해오차는 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 요인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2년제대학 집단의 방해오차는 .49이고 4년제대학 집단은 .43으로 자아개념, 환경적진로장벽, 심리적진로장벽,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초기값을 각각 51%, 57%로 설명하고 있다. 이 결과는 두 집단에서 추정된 다른 방해오차값과는 다른 결과인 것이다. 환경적진로장벽, 심리적진로장벽, 자아탄력성은 2년제대학 집단이 4년제대학 집단보다 큰 설명량(적은 방해오차)인 반면, 행복감초기값은 4년제대학 집단의 설명량이 크게 추정된 것이다. 그러나 행복감변화값은 2년제대학 집단이 4년제대학 집단의 방해오차가 작게 추정되고 있다. 방해오차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종 종속요인인 행복감을 잠재성장모형인 무조건모형을 포함하여 설정한 본 연구모형은 4년제대학보다 2년제대학 집단을 좀 더 적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구조방정식모형 직접효과

경로		2년제대학(n=499)				4년제대학(n=892)			
		B	β	SE	t	B	β	SE	t
자아개념	→ 심리적진로장벽	-.30	-.28	.07	-4.26***	-.27	-.20	.06	-4.25***
	→ 환경적진로장벽	-.46	-.50	.06	-7.09***	-.38	-.44	.05	-7.90***
	→ 자아탄력성	.34	.43	.06	6.10***	.32	.43	.04	8.17***
	→ 행복감_intercept	1.38	.48	.28	4.94***	1.15	.47	.18	6.50***
	→ 행복감_slope	-.21	-.23	.15	-1.37	-.18	-.17	.10	-1.79
환경적 진로장벽	→ 심리적진로장벽	.74	.63	.09	8.21***	.98	.61	.09	10.83***
	→ 자아탄력성	-.41	-.48	.10	-4.28***	-.17	-.19	.06	-2.93**
	→ 행복감_intercept	-1.49	-.48	.46	-3.21**	-1.35	-.48	.29	-4.67***
	→ 행복감_slope	.05	.05	.26	.18	.27	.22	.17	1.64
심리적 진로장벽	→ 자아탄력성	.16	.22	.08	1.96	-.01	-.03	.03	-.41
	→ 행복감_intercept	.97	.36	.39	2.49*	.53	.30	.15	3.47***
	→ 행복감_slope	-.06	-.06	.21	-.27	-.28	-.37	.10	-2.84**
자아 탄력성	→ 행복감_intercept	.63	.17	.36	1.75	.60	.19	.20	3.05**
	→ 행복감_slope	-.22	-.19	.22	-1.02	-.19	-.14	.12	-1.54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구조방정식모형 간접효과

경로		2년제대학(n=499)				4년제대학(n=892)			
		B	β	SE	t	B	β	SE	t
자아개념	→ 심리적진로장벽	-.34	-.31	.06	-5.75***	-.37	-.27	.05	-7.29***
	→ 자아탄력성	.09	.11	.04	2.15*	.07	.10	.02	4.16***
	→ 행복감_intercept	.33	.12	.20	1.67	.41	.17	.10	3.96***
	→ 행복감_slope	-.08	-.09	.10	-.78	.00	.00	.06	.04
환경적 진로장벽	→ 자아탄력성	.12	.14	.06	1.88	-.01	-.02	.03	-.41
	→ 행복감_intercept	.53	.17	.34	1.54	.41	.14	.17	2.45*
	→ 행복감_slope	.03	.02	.18	.14	-.24	-.20	.11	-2.30*
심리적 진로장벽	→ 행복감_intercept	.10	.04	.07	1.44	-.01	.00	.02	-.39
	→ 행복감_slope	-.04	-.04	.04	-.89	.00	.00	.01	.38

* $p < .05$, ** $p < .01$, *** $p < .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 대학생의 행복감을 자아개념과 진로 방해요인인 진로장벽 인식과 인과 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개념은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점부터 4차년 자료를 투입하였으며, 대학교육 시점의 환경적 진로장벽과 심리적 진로장벽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 재

학 중 진로장벽 인식이 최종 종속요인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행복감은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미래 한국사회 부양세대가 될 대학생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부터 대학시점까지 자아개념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자아개념이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자아개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제 해결 또는 극복 역량인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2년제대학 집단에서는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초기값과 행복감변화값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4년제대학 집단은 자아탄력성→행복감초기값 경로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는 초기값에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아개념은 대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다. 즉, 긍정적 자아개념은 환경적진로장벽 뿐 만 아니라, 심리적 진로장벽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환언하면, 긍정적인 자아인식은 환경적 또는 심리적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환경적 또는 심리적 진로장벽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환경 및 심리적 진로장벽은 행복감 초기값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이 진로장벽 인식이 높으면 행복감은 반드시 낮아지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진로장벽이 지속적으로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4년제대학 집단은 심리적 진로장벽이 행복감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2년제 대학생과 4년제대학생의 진로장벽 효과의 차이는 심리적진로장벽→행복감변화값 경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곽수란(2022).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초기 성인기 대학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교육부(2021). 교육통계분석.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 김수현(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에서 심리적 진로장애와 개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57-1078.
- 김종운·박성실(20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 박정희·김홍석(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신지영·박성실·형정은(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19-35.
- 이기종. (2012). 구조방정식모형-인과성·통계분석 및 추론.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경, 김정민(2017). 청소년 자아정체감, 대학만족도 및 직장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7(2), 121-143.
- 정기수·하정희(2018).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1), 437-455.
- 조현주(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의 관계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의 매개 및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61-75.
- 차아름·이희경(2014).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5(1), 343-358.
- Browne, M. W, & Cudeck, R.(1993). Single sample cross 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 445-455.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othaller, H.(2010). On the way to life-domains balance: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Joerg Tremmel(Eds), In: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Springer Berlin Heidelberg.
- Marcia, J. 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Wiley.
- Schiedel, D. G. & Marcia, J. E.(1985). Ego identity, intimacy, sex role orientation,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49-160.
- Swanson, J. L., & Tokar, D. M.(1995). Colleges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Abstract ❖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Recognition on Happiness in University Students: Time Series Analysis

Kwak Soo-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happiness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KEEP) data. I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ath to college entrance in Korean society, first of all, college students' perceived career barriers affect their happiness and then, compare whether the causal relationship is different between colleges and universities.

Happiness, the last dependent variable, factors of be subject to change factor, so it was involved as the unconditional model, a latent growth model that can predict changes in the third year. In addition, self-concept, reflecting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dividual self-cognition, from adolescence to the present, was input as an exogenous variable on S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direction between colleges and universities on the results. In addition, it can be verifi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groups in the effect of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hanges in their happiness. However, the effect of self-concept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shows common outputs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xplore happiness and the factors that change. Furthermore can be used as information to support a healthy life for college students entering adulthood.

Key words: career barriers, self-concept, ego-resilience, happiness